

5 병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고양이로 실험

【병원인을 어떤 방법으로 알아냈는가?】

제대로 걷지도 말도 못하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나마타시와 구마모토현의 의뢰를 받고 구마모토대학 의학부에서는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.

환자들을 관찰하고 음료수나 토지 등을 조사해보았지만 이병은 전염병이 아니라 그 무언가의 중독증으로서 미나마타에서 잡은 물고기나 조개등을 먹음으로써 생긴 병이라는 것을 알았냈습니다.

미나마타만과 그 주변에 많은 고양이들이 병에 걸려 발광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1956년부터 구마모토대학과 보건소에서는 미나마타만의 물고기와 조개를 고양이에게 먹여서 같은 병에 걸리는가를 조사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. 이 실험결과, 1957년에 미나마타 어촌의 고양이 들과 같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. 이 고양이를 상대로한 실험은 병의 원인을 알아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내어 같은 해 구마모토현은 미나마타만에서 물고기와 조개를 잡거나 먹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.

한편, 1959년에는 짓소공장의 부속병원에서는 공장의 폐액을 고양이에게 먹이면 미나마타병에 걸린다는 것을 실험을 하여 알아냈지만 짓소는 이 사실을 감추고 1968년까지 공장폐수를 바다에 흘려버렸습니다.

